특별선교주일

연합감리교구호주일
설교 자료



본 설교 자료는 목회자 및 지도자들의 연합감리교구호주일 예배 준비를 돕기 위해, "긍휼을 실천하기: 하나님의 빛으로 살기"라는 주제에 맞춰 제작되었습니다. 아래 자료를 각 교회의 예배 상황에 맞게 바꾸어 사용하시고, 연합감리교구호주일 자료 묶음에 포함된 다른 자료들과 함께 사용하세요.

2023년 2월, 튀르키예 남부에서 진도 7.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연합감리교구호위원회(UMCOR)는 튀르키예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협력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많은 이재민들이 텐트에 살면서 위험을 감수한 채 촛불이나 등유 랜턴을 사용하는 상황이었고, 연합감리교인들의 후원으로 태양열 랜턴이 배포되었습니다.

우리는 구호위원회를 통해 연민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빛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1절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본문은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의 대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니고데모는 늦은 밤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공간을 찾고 있으며,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 방해받지 않은 채 거룩하고 새로운 관점을 듣습니다.

이 대화는 온 세상을 사랑하시며 예수님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 긍휼의 마음으로 이 대화에 참여하시며 니고데모의 삶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십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후일 니고데모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 할 때 예수님의 편에 서고,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상당량의 몰약과 침향을 가져옵니다. 그는 긍휼을 실천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연합감리교구호위원회(UMCOR)는 사람들의 삶의 가장 암울한 순간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등대와 같습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 집을 잃었을 때, 삶이 뒤집어졌을 때, 구호위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대로 그곳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타티아나(Tatiana)와 일곱 살 난 딸은 전쟁을 피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카르파티아 동부의 체르니우치 지역의 보호소와 연결되었습니다. 구호위원회와 함께 일하고 있는 IOCC라는 단체가 지원하는 엘레오스-우크라이나 보호소였습니다.

"호텔과는 모든 면에서 달랐습니다. 이곳에는 좋은 시설과 깨끗한 방이 있고 우리의 말에 항상 귀 기울여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라고 타티아나는 말합니다.

타티아나와 딸은 건강 검진과 법률 상담을 받았고, 주 정부의 사회 복지 혜택을 받을 자격을 얻었습니다. 타티아나는 일자리를 찾았고 딸은 인근 학교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걱정하고 돕고자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구호위원회를 통해 긍휼의 마음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빛이 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연합감리교구호위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본보기입니다. 우리는 구호위원회를 후원하면서 우리 자신보다 훨씬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고, 그 빛을 더욱 밝게 비추게 됩니다. 우리는 구호위원회를 통해 성금요일의 절망에 있는 이들을 찬란한 부활의 세계로 인도합니다.